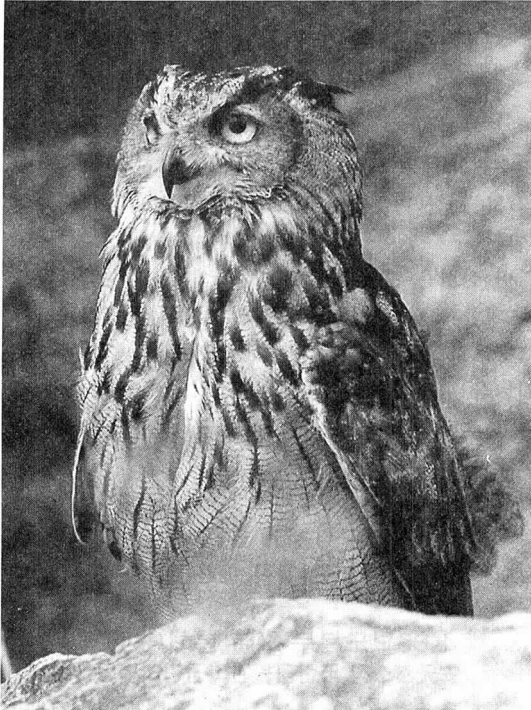


## 수리부엉이

學名 *Bubo bubo kiauutschensis*  
英名 Eagle Owl



해거름 산행의 하산길이나 암자나 사찰, 산촌마을에서 밤을 보낼때는 자주 수리 부엉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소리는 다소 으시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방송드라마에서도 계략이 낀 밤분위기에는 흔히 수리부엉이 소리를 효과음으로 쓴다.

세계적 分布는 중국동부와 일부, 그리고 우리나라에 局限되어 있다.

學術的 分類는 올빼미 목(目) 올빼미 과(科)로 가름하는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유사한 종류는 11종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체구가 크고 위용이 있는종이 수리부엉이 이다.

부리끝에서 꼬리끝까지의 몸길이 즉 全長의 평균치가 67cm쯤 되는데 이종은 특히 일반적인 조류와는 반대로 앞깃이 수컷보다 훨씬크고 우람한것이 특징

글·사진 鳥類研究家 李正雨

이고 몸길이에 있어서도 5cm이상 차이가 나며, 양쪽 날개를 펼쳤을때는 어른의 양팔벌린 길이 만큼이나 된다.

棲息地는 계곡을 낀 암반이 있는 곳을 즐기는데 採食을 할때는 숲이나 야산을 가리지 않으며 때로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양계장으로도 날아들어 닭을 습격하는 일도 있다.

대표적 夜行性조류로 밤에 활동하지만 번식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우연한 황제를 「부엉이 집 만났다」는 말을 쓰는데 실제 새끼를 기르는 수리부엉이 집에는 꿩이나 산토끼를 무차별 살생하여 먹이를 쌓아 두기 때문에 이말이 예로부터 전해 지는 듯하다.

전국에 걸쳐 고루 퍼져 사는 텃새로 서식환경이 좋은곳은 월등하게 서식밀도가 높으며 도서지방보다는 내륙이 밀도가 높다.

일반적 조류는 대개 3월부터 發情期가 되어 번식채비를 하나 이 수리부엉이는 이상하게 추운 겨울철에 번식을 시작한다.

1980년 경북 청송産의 예를 보면 2월 초순에 어린 새가 부화되었는데 알 품는 기간, 36~37일을 따져보면 이미 12월 하순에 산란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알은 암벽의 틈에 産座는 없고 약간 흙을 오목하게 한다음 2~3개의 백색알(5.7cm×5.2cm)을 낳아 암컷이 품으며, 수컷은 집을 지키는 일과 먹이공급을 주관한다.

앞서 적은 꿩이나 토끼외에도 다람쥐나 쥐, 곤충, 양서. 파충류까지 동물성 먹이 만을 먹는새이다.

地上性조류가 즐기는 모래목욕을 즐기는 일과 번식지는 人家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는 사실은 特記할만하다.

모든 야생조류가 그렇듯 원시상태의 때문지 않은 서식환경이 개발과 수종갱신공해, 인해에 박탈당하여 발붙일곳이 줄어들어가는것이 안타까운데 수리부엉이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수리부엉이는 간질병에 특효라는 근거없는 소문때문에 수난을 당해오기도 하였다.

그래서 1982년 11월 4일자로 수리부엉이를 위시하여 올빼미 솔부엉이, 칙부엉이, 쇠부엉이, 숫작새, 큰숫작새등이 7종을 묶어 천연기념물 324호로 種자체를 지정하여 종전의 단순한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